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벤자민 워필드의 재림 이해 및 평가

송영목

(고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 I. 들어가면서
- II. 아브라함 카이퍼의 재림 이해
- III. 헤르만 바빙크의 재림 이해
- IV. 벤자민 워필드의 재림 이해
- V. 카이퍼, 바빙크 그리고 워필드의 재림 이해 비교
- VI. 카이퍼, 바빙크, 그리고 워필드의 재림 이해에 대한 평가
- VII. 나오면서

[초록]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는 76세 때부터 6년간 자신이 편집장으로 섬긴 주간지 'De Heraut'에 요한계시록에 관해 기고했다. 이 책은 그의 사후에 출판되었는데, 국내에는 생소하다. 그 무렵 헤르만 바빙크(1854-1921)는 『개혁교의학 4』(1895/1906)의 마지막 제11부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하여 종말을 다루었다. 그런데 국내에서 넓게는 바빙크의 종말론, 좁게는 재림에 대한 조직신학 및 성경신학적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워필드의 재림 이해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연구의 미진한 부분으로 남겨진 카이퍼와 바빙크 그리고 워필드의 종말론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모아 그들의 이해를 소개하고 비교하며 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부들의 계시록 주석, 세 학자 당시의 네덜란드어 요한계시록 주석, 그리고 현대의 요한계시록 주석과 연구를 참고한다. 마지막으로 이 세 학자의 예수님의 재림 이해에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올바른 주석의 방향을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 개혁주의 종말론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적 개혁주의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를 동시에 살피는 의의가 있다.

키워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 재림, 비교, 평가

논문투고일 2022.01.24. / 심사완료일 2022.03.02. / 게재확정일 2022.03.07.

1. 들어가면서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는 76세 때부터 6년에 걸쳐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던 주간지 ‘De Heraut’에 요한계시록 해설을 기고했다.¹ 이 책은 그의 사후에 출판되었는데, 국내에는 생소하다. 카이퍼가 찬사를 보낸 헤르만 바빙크(1854-1921)의 『개혁신학』 제4권(1895/1906) 중 마지막 제11부는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하여 종말을 다루었다.² 그런데 한국에서 넓게는 바빙크의 종말론, 좁게는 그의 재림에 대한 조직신학 및 성경신학적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두 화란 신학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벤자민 워필드(1851-1921)는 ‘천년왕국과 요한계시록’에 대해 소논문을 기고했지만, 역시 국내에서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³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연구의 미진한 부분으로 남겨진 카이퍼와 바빙크 그리고 워필드의 종말론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모아 그들의 이해를 소개하고 비교하여 평가하는 데 있다. 비교와 평가를 위해, 교부들의 요한계시록 주석, 카이퍼와 바빙크와 워필드 당시 시클 흐레이다너스(Seakle Greijdanus, 1871-1948)의 요한계시록 주석, 그리고 현대의

1 A.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trans. J. H. de Vries (Eugene: Wipf & Stock, 1999), np. 참고로 프린스턴신학교의 벤자민 워필드(d. 1921)는 자신의 제자이자 동료이며 ‘미국의 바빙크’라 불린 게할더스 보스(d. 1949)의 영향을 받아 ‘De Heraut’를 구독했기에 카이퍼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잘 알고 있었다. G. Harinck, “Herman Bavinck and Geerhardus Vos,” *Calvin Theological Journal* 45 (2010), 25, 27. 참고로 카이퍼의 영원 칭의론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 주제 역시 종말론과 직결되지 않는다. 박재은, “아브라함 카이퍼와 영원으로부터의 칭의,” 『쟁신과 부흥』 27 (2021), 210.

2 벤자민 워필드는 바빙크의 『개혁신학』을 알았으며, 게할더스 보스는 *Princeton Theological Review*(1896, 1899)에 서평을 실었다.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4, 박태현 역, 『개혁신학 4』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697-867; Harinck, “Herman Bavinck and Geerhardus Vos,” 29. 참고로 바빙크의 조카이자 자유대학교와 칼빈신학교의 선교학 교수 J. H. Bavinck(1895-1964)의 요한계시록 해설서는 교회와 하나님을 떠난 세계의 독재자와 타락한 세력을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 및 적그리스도(계 13:1) 간의 전투를 통해 영적 교훈을 얻으려는 이상주의 방식을 따른다. *En Voort Wentelen de Eeuwen: Gedachten over het Boek der Openbaring van Johannes* (Wageningen: Zomer en Keuning, 1964), 209, 218-25.

3 B. B. Warfield, “The Millennium and the Apocalyps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2 (1904), 599-617. 이 논문은 B. B. Warfield, *Biblical Doctrin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1929]), 643-64에도 실렸다.

요한계시록 주석과 연구를 참고한다. 마지막으로 약 100년 전에 소천 받은 이 세 학자들의 재림 이해에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올바른 주석의 방향을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

II. 아브라함 카이퍼의 재림 이해

카이퍼의 요한계시록 주석에 나타난 재림 이해를 파악하려면, 아래와 같은 그의 계시록 해석원칙에 주목해야 한다. (1) 박해 받던 소아시아의 독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지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알리는 예언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묵시’이다. (2) 숫자와 인물 등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3) 환상은 모든 시대에 일어날 선과 악의 대결을 묘사하되, 환상의 순서는 시간적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4) 재림 직전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간의 대결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역사는 마무리된다.⁴ 요약하면, 카이퍼는 묵시 상징적 해석을 통해 선악 간의 대결을 파악하는데, 이 때 과거론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상주의, 역사주의, 그리고 미래주의를 혼합한다.⁵

카이퍼는 자신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소제목을 ‘파루시아’로, 19장은 ‘심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소제목을 붙인다. 그는 파루시아 즉 재림을 다루는 계시록 14:16의 ‘흰 구름’은 재림의 구름이므로(참고. 19:11의 백마), 성부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심판을 시행하심으로 세상 역사는 완성된다고 주장한다.⁶ 카이퍼는 계시록 14:17의 포도 수확 환상을 20:12의 ‘책들’과 연결하여 최후심판으로 이해한다.⁷ 그리고 계 14:20의 포도

4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np.

5 요한계시록의 과거론은 요한 당시에 성취된 관점으로 읽고, 이상주의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속에서 영적 원칙을 찾으며, 역사주의는 계시록의 예언이 시대마다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탐구하고, 미래주의는 재림 중심으로 해석한다. 참고. 송영목, “요한계시록의 전통적 4가지 해석의 비교 및 분석,” 「그 말씀」 11월호 (2007), 110-25.

6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149-50, 248.

7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151-52.

수확이 일어난 ‘성’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결국 모든 시대의 심판을 받을 사람을 가리킨다고 본다.⁸ 카이퍼에 따르면, 계시록 14:20의 포도즙 틀에서 1600스타디온 길이로 흐른 피는 예수님께서 세계의 질서를 독점한 적그리스도, 곡, 그리고 마곡과 별이는 최후 전쟁을 가리킨다.⁹ 그리고 이 포도즙틀 심판과 유사한 것은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인데, 이것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심판들로서 결국 세상 종말의 최후심판으로 이어지기에 재림의 징조들이다.¹⁰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런 징조를 반복하여 알리는가? 카이퍼는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죽으면 사도시대가 종결되기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리는데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카이퍼는 계시록 17-18장의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은 온 세상의 붕괴를 가리키며, 그 음녀의 파멸로써 요한은 미래 종말 때의 고통을 묘사한다고 설명한다.¹¹ 다시 말해, 바벨론은 악한 전체 세상을 가리키므로, 바벨론이 파멸됨으로써 악한 세상은 갱신될 것이다.¹² 카이퍼는 바벨론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비도덕적 도시들인 베를린, 파리, 런던, 그리고 뉴욕을 거론한다.¹³

카이퍼는 재림을 가리키는 계시록 19:11의 백마가 계시록 6:2의 백마와 다르므로, 후자는 재림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본다.¹⁴ 그리고 백마 타신 예수님께서 무찌르신 세력은 곡과 마곡(계 20:8)과 결합된 적그리스도의 군대이다.¹⁵ 그런데 카이퍼는 계시록 19:13의 원수들의 피가 묻은 예수님의 옷이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고 잘못 주장할 뿐 아니라, AD 30년경 십자가 사건을

8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154.

9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154-55.

10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19, 22, 266. 계 8:7의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최종 심판 직전에 있을 심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심판에 대한 끔찍한 경고라는 설명은 I. H. Marshall, "How did the Early Christians know Anything about Futu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Baptist Studies* 9/3 (2009), 19를 보라.

11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210, 214, 240.

12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206.

13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208.

14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258. 이와 유사한 주장은 D. J. MacLeod, "The First 'Last Thing': The Second Coming of Christ (Rev 19:11-16)," *Bibliotheca Sacra* 622 (1999): 210;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950을 보라.

15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260.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재림 논의의 맥락에서도 벗어나고 있다.¹⁶

카이퍼는 계시록 17:9의 음녀가 탄 짐승의 7머리는 로마제국의 황제들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설명하므로, 과거적 해석을 반대한다.¹⁷ 오히려 7머리는 세상 역사의 7기간인데, 이집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각각 가리킨다.¹⁸ 그리고 계시록 17:11의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여덟째 왕’은 적그리스도라 본다.¹⁹

카이퍼는 계시록 20:2-7의 숫자 1000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데(시 90:4; 벧후 3:8; 275), 1000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 첫 단계와 둘째 완성 단계 사이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기간이라고 주장한다.²⁰ 그리고 용이 결박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것(계 20:2-3)은 용이 미가엘에게 패배당한 것(계 12:7-12)과 같은 의미이므로, 계시록의 환상 내러티브는 시간적 순서를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카이퍼는 예수님께서 전천년설의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고 언제든지 재림할 수 있다고 본다.²¹ 위로의 편지인 계시록은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종말에 가하는 박해를 끝내실 것을 소망하는데, 재림은 역사의 모든 시대에 일어날 일들과도 무관하지 않다.²² 따라서 여기서 카이퍼는 세상-교회 역사적 해석과 미래적 해석을 결합한다.

카이퍼는 천년왕국 후 풀려난 용의 세력이 퍼붓는 공격(계 20:7-9)은 첫 사람의 창조와 에덴동산 이전에 천사들의 타락부터 있어온 사탄의 세력이 최종 공격을 퍼붓다 결국 패배당해 세상 역사가 완성될 것을 설명한다고 본다. 그런데 카이퍼는 곡과 마곡이라는 악의 세력이 크리스천이 많이 거주하는 ‘문명국가’를 공격할 것으로 이해한다. 그 결과 사탄은 지옥에 던져지고 신천신지가 도래한

16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259.

17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223.

18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224. 이와 유사한 주장은 F. P. Möller, “A Hermeneutical Commentary on Revelation 20:1-10,” *In die Skriflig* 53/1 (2019), 9를 보라.

19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228.

20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277, 284-85.

21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270.

22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271.

다.²³ 여기서 카이퍼 자신의 문화명령과 세계관은 그의 계시록 주해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

카이퍼에 따르면, 계시록 21:1의 신천신지는 간본문(상호본문)인 이사야 65:17, 66:22, 베드로후서 3:12-13,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예언된 것으로, 에덴동산 이전에 시작된 사탄과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파멸된 후에 임할 것이다.²⁴ 인간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 간의 전쟁 역사인데, 미래 종말에 절정에 달할 전쟁과 심판 그리고 몸의 부활(계 20:12-15)은 눈 깜짝할 동안 일어날 사건이다.²⁵ 그런데 최후심판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소관이다.²⁶ 여기서 카이퍼는 신천신지가 새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고 미래의 실재로 파악한다.

카이퍼는 계시록 21:2의 새 예루살렘성을 박해 중의 독자들을 위로하는 이미지로 본다. 그리고 그는 갱신된 새 세상인 신천신지의 중심지에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성이 있다고 해석한다(요 14:2-3).²⁷ 동시에 카이퍼는 새 예루살렘성을 영적 교회로도 간주하기에, 그 성은 장소와 사람을 동시에 가리키는 두꺼운(tensive) 상징이다.²⁸

카이퍼에 따르면, 생명수 강과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복된 교제를 묘사하는 계시록 22:1-5는 상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갱신된 낙원 즉 완전한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이다.²⁹ 마침내 세상은 소멸되지

23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298-99. 참고로 Van de Voleinding(완성에 관하여, 1929)에서 카이퍼는 현 세상 질서가 신천신지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으면서도, 종말 이해에서 모든 것을 영화시키는 것(spiritualizing)도 반대한다. 그는 동식물이 신천지에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 H. Boersma, "Blessing and Glory: Abraham Kuyper on the Beatific Vis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52/2 (2017), 208-210에서 재인용.

24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302-306. 참고로 카이퍼는 베후 3:10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피조계가 새 창조의 과정에서 파괴된다고 보는데, 이 때 파괴되는 것은 형태이고 본질은 더 영광스러운 새 형태로 나타난다. D. Kristanto, "Is the Creation under Destruction?: Abraham Kuyper and Herman Bavinck on New Creation," *Jurnal Teologi dan Pelayanan* 19/2 (2020), 194.

25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305.

26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304.

27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317, 322, 327, 345. 이와 유사한 주장은 MacLeod, "The First 'Last Thing': The Second Coming of Christ (Rev 19:11-16)," 208을 보라.

28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311.

않고 갱신되고(사 11:6-9; 65:25; 겔 34:25; 호 2:18; 슥 14:6; 337), 계시록 22:7의 속히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인간 역사의 '완성이 끝날 것'이다. 카이퍼는 마태복음 13:40-42, 22:13, 24:51 등을 통해 만인구원론을 반대하면서, 그의 동시대 신학자들을 비판한다(예. 솔라이에르마허, 리츨, 슈바이처).³⁰

III. 헤르만 바빙크의 재림 이해

바빙크는 『개혁신학의학』 제4권 제11부에서 '종말'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11부는 제61장 중간상태, 제62장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제63장 세상의 완성으로 구성된다. 바빙크가 종말을 논하는 방식은 카이퍼처럼 계시록을 주석하는 형식을 따르지 않지만,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인용한다.

바빙크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요한 당시의 고난 중에 있던 교회들을 영적 전투 가운데 인내하기 위해 승리의 면류관을 보여줌으로써 위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¹ 그는 성경이 하늘에 시민권을 둔 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사는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점에 주목하면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교회의 승리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³²

바빙크는 계시록 6-9장의 7인, 7나팔, 7대접은 시간적 순서로 일어날 심판이 아니며, 이 세 시리즈 심판은 1차적으로 요한 당시 형편과 사건을 조망하면서도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세상에서 벌어질 일들이라고 본다.³³ 따라서 그는 계시록의 환상들이 동일한 실재를 반복하여 가리킨다는 이론을 지지하면서, 과거론과

29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328.

30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345-46. 참고로 카이퍼는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와 중간상태(계 6:11; 14:13)에서는 '복'(zaligheid)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인을 영혼이 몸과 연합되어 복보다 더 나은 '영광'(heerlijkheid)을 받아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Boersma, "Blessing and Glory: Abraham Kuyper on the Beatific Vision," 213, 215, 218에서 재인용. 그리고 H. Boersma, "Neo-Calvinism and the Beatific Vision: Eschatology in the Reformed Tradition," *Crux* 56/3 (2020), 25-28도 참고하라.

31 Bavinck, 『개혁신학의학』 4, 811.

32 Bavinck, 『개혁신학의학』 4, 674.

33 Bavinck, 『개혁신학의학』 4, 812.

미래 종말을 향하는 역사적 해석을 혼용한다.

바빙크는 지구가 파멸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그 당시의 여러 가지 과학적 가정으로부터 지지한다.³⁴ 이것은 노아가 받은 세상보존언약의 약속과 충돌하는데(창 8-9), 바빙크가 복음을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다 발생한 부산물과 같다.³⁵ 바빙크의 논리를 따르면, 지구는 가만히 두어도 파멸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 심판을 시행하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바빙크는 계시록 20:2-7에 반복된 숫자 1000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천년왕국을 전천년설처럼 문자적 숫자로 해석하면 유대교로 돌아가기에 기독교의 메시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³⁶ 그는 신약교회는 구약의 국가적이며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대체했기에(계 2:9; 3:9), 로마서 11:26의 온 이스라엘은 구원 받을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함으로써 전천년설을 추가로 비판한다.³⁷ 이 때 바빙크는 전천년설을 반대하는 카이퍼와 워필드를 언급하여 자신의 논증에 무게를 더한다.³⁸

바빙크는 구약의 예언들이 자기 당시까지도 성취 중이라고 보면서, 결국 그 예언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 상황과도 연결된다고 주장한다.³⁹ 따라서 구약 예언들과 성취는 예수님의 초림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바빙크가 주님의 재림 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종종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런 논리이다.⁴⁰

바빙크에 따르면, 계시록 4:1 이하의 내러티브는 요한 당시, 세상의 종말(만물의 마지막)을 사는 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전체적으로 묘사한다. 그는 보좌 환상(계 4-5)을 지상의 형편을 가리키지 않고, 모든 싸움이 끝난

34 Bavinck, 『개혁교의학 4』, np.

35 노아언약은 재림까지 온 세상의 보존을 약속하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정치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D. VanDrunen, 『기독교 정치학』, *Politics after Christendom*, 박문재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20), 제3-4장과 제8-10장을 보라.

36 Bavinck, 『개혁교의학 4』, 782, 812.

37 Bavinck, 『개혁교의학 4』, 791, 794-96.

38 Bavinck, 『개혁교의학 4』, 788.

39 Bavinck, 『개혁교의학 4』, 786.

40 Bavinck, 『개혁교의학 4』, 803-804.

천상의 모습이라고 주장한다.⁴¹ 따라서 그는 과거주의, 역사주의, 그리고 미래주의를 혼용하되, 계시록 내러티브의 앞부분에서부터 계속하여 미래적 의미를 매우 강조한다.

바빙크는 계시록의 짐승들과 재림 이전에 활동할 적그리스도를 직접 연결한다. 예를 들어, 바다짐승(계 13:1)은 로마제국을 가리키며, 그의 하수인인 땅 짐승(계 13:11)은 적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거짓 예언과 거짓 종교이다.⁴² 바다짐승이 구체화되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요한 당시에 등장한 것은 다름 아니라 로마제국이다.⁴³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실현되며(요일 2:18, 22; 4:2-3; 요이 7),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모든 시대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예수님은 최고로 발전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재림으로써 멸망시키실 것이다.⁴⁴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재림 직전의 종말로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에 점층적으로 역사한다. 하지만 바빙크가 요한일이서의 가현설주의자를 가리키는 적그리스도를 계시록의 짐승을 해석하기 위해 그대로 도입하여 연결한 점은 요한서신과 계시록이 다른 기록목적과 역사적 상황에서 기인한 점을 간과한 것이다.

큰 성 음녀 바벨론(계 17-18)은 모든 시대의 악의 세력을 가리키지만, 1차적으로는 요한 당시의 로마제국을 가리킨다.⁴⁵ 음녀 환상을 뒤 따르는 백마 타신 예수님의 전쟁과 승리(계 19:11-16)는 재림의 모습이다.⁴⁶ 여기서 바빙크는 악의 세력이 파멸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철저하게 시간적 순서를 따라 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 가운데 맨 나중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심지어 계시록 2-3장의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권면이라

41 Bavinck, 『개혁교의학 4』, 801-802.

42 Bavinck, 『개혁교의학 4』, 802, 805.

43 Bavinck, 『개혁교의학 4』, 804.

44 Bavinck, 『개혁교의학 4』, 804, 805.

45 Bavinck, 『개혁교의학 4』, 802.

46 바빙크는 계 19:11-16을 재림이 아니라 '승천'이라고도 간주하기에 자체적인 논리 모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Bavinck, 『개혁교의학 3』, 550; 『개혁교의학 4』, 803. 이와 유사한 해석은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949를 보라.

고 주장하지만, 소아시아 7교회를 세대주의식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은 반대한다.⁴⁷ 여기서 바빙크는 계시록 2-3장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당면한 핵심 이슈를 재림으로 소개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며, 재림이야말로 교회들이 박해를 극복하는 유일하거나 최선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시록 6-9장의 7인, 7나팔, 7대접 심판시리즈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류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최후심판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이해한다.⁴⁸ 그런데 바빙크는 계시록의 심판 시리즈에 언급된 강과 바다와 새과 수목과 같은 자연이 악인과 대등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바빙크에게 있어 재림은 계시록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바빙크는 공관복음서의 감람산강화와 계시록의 심판을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감람산강화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이전의 세상 종말의 징조들(사람의 악함, 배교)을 설명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24:29-37이며(참고. 딤후 3:1; 벴후 3:1; 유 18), 마태복음 24:14는 재림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언한다.⁴⁹ 따라서 마태복음 24:14와 29절 이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재림을 예고한다. 바빙크는 마태복음 24:34의 ‘이 세대’를 감람산에서 설교를 듣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시대라고 보면서도, 34절의 ‘이 모든 것들’은 재림의 징조로 이해한다.⁵⁰ 따라서 여기서 바빙크는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어색한 논리를 전개하는 모순에 빠진다.⁵¹

바빙크는 재림을 데살로니가후서 2:2, 7-8의 ‘불법의 사람’을 재림의 예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할 미래적 인물인 적그리스도로 간주한다.⁵² 그리고 예수님께서

47 Bavinck, 『개혁교의학 4』, 801.

48 Bavinck, 『개혁교의학 4』, 803.

49 Bavinck, 『개혁교의학 4』, 800, 801, 808. 이와 유사한 주장은 E. Mueller, “Jesus and His Second Coming in the Apocalypse,”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11/1-2 (2000), 211을 보라.

50 Bavinck, 『개혁교의학 4』, 799.

51 이런 모순은 C. E. Berry,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the Coming of the Son: Evangelical Interpretations of the Olivet Discourse in Luke,” *The Southern Baptist Journal of Theology* 16/3 (2012), 69에서도 볼 수 있다.

52 Bavinck, 『개혁교의학 3』, 227; 『개혁교의학 4』, 804. 이와 유사한 주장은 J. A. du Rand,

서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전파가 온 세상에 있을 것인데(마 24:14), 재림 이전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살후 2:2, 7-8)가 출현할 것이다.⁵³ 따라서 바빙크는 감람산 강화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재림이라는 미래 종말론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바빙크는 명사 ‘파루시아’는 재림만 가리키지 않지만, 많은 구절에서 재림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참고. 마 24:30; 살후 1:7; 계 1:7; 14:14; 19:11, 14).⁵⁴

그는 계시록 19장과 20장을 시간 순서대로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다고 보지 않는다.⁵⁵ 그리고 이 두 장은 병렬구조 속에 성도와 적그리스도가 최후까지 대결하는 내용이라고 본다.⁵⁶ 그런데 두 짐승이 불 심판을 받는 계시록 19:20을 통해 바다짐승(계 13:1)과 땅 짐승(계 13:11)의 심판 그리고 용의 심판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 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계 20:11-15).⁵⁷ 그러나 바빙크의 설명과 달리, 계시록 19:20은 용의 파멸과 심판은 언급하지 않는다. 바빙크는 성도가 죽는 즉시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아서 왕 노릇하면서 악을 다스린다고 보며(계 20:4),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성도의 부활과 그것과 별도로 있을 불신자의 부활이라는 이중 부활을 반대한다.⁵⁸

Die Einde: Die A-Z van die Bybelse Boodskap oor die Eindtyd (Vereeniging: CUM, 2013), 134; W. B. Wallis, “The Coming of the Kingdom: A Survey of the Book of Revelation,” *Presbyterion* 8/1 (1982), 41을 보라.

- 53 Bavinck, 『개혁신학 4』, 818. 참고로 마 24:15-31을 재림의 징조로 보면서 둘 성전 파괴가 재림을 한 단계 더 가까이 초래한다는 주장은 Taylor, “Early Christian Expectations concerning the Return of Jesus,” 39를 보라.
- 54 Bavinck, 『개혁신학 3』, 301; 『개혁신학 4』, 819. 이와 유사한 주장은 바빙크가 잘 알고 있었던 네덜란드신앙고백서(1561) 제37조 ‘최후심판’의 증거구절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MacLeod, “The First ‘Last Thing’: The Second Coming of Christ (Rev 19:11-16),” 208; H. P. van Rhyn and G. J. C. Jordaan, “N Betekenisdefinisie van *παρουσία* as Wederkomswoord,” *In die Skriflig* 54/1 (2020), 8도 보라. Contra 계 1:7을 예수님께서 요한 당시 로마제국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언으로 보는 신동욱. “요한계시록은 임박한 종말을 말하고 있는가?” 『신약논단』 17/4 (2010), 1124-25.
- 55 Bavinck, 『개혁신학 3』, 301, 548; 『개혁신학 4』, 810, 819. Contra N. H. Taylor, “Early Christian Expectations concerning the Return of Jesus: From Imminent Parousia to the Millennium,”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104 (1999), 42.
- 56 Bavinck, 『개혁신학 4』, 811, 813.
- 57 Bavinck, 『개혁신학 4』, 813.
- 58 Bavinck, 『개혁신학 4』, 809-810.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시켜서 면류관을 씌우며, 예수님은 초림으로 이미 승귀되셨지만 재림으로써 마지막 최상의 승귀 단계로 나아가신다. 그리고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심판은 재림으로써 완성된다.⁵⁹ 여기서 바빙크는 예수님의 승리와 승귀 그리고 악의 세력이 받을 심판을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의 구도로 균형 있게 파악한다.

바빙크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에 지옥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없으며, 악인의 최후 심판 후 세상 갱신이 뒤 따른다고 주장한다.⁶⁰ 다시 말해, 먼저 땅이 불타고(벰후 3:10) 그 다음에 신천신지가 도래한다(벰후 3:13). 바빙크는 예수님의 부활로의 변형은 곧 온 피조물의 변형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종말론은(만유적) 기독교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그 자체가 기독교론이라고 주장한다.⁶¹

바빙크에게 있어 자연을 갱신시키는 은혜와 누룩과 같은 천국이라는 두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이 ‘십지어 지금도’ 자연 기구들(natural institutions)을 종말론적으로 갱신시키고 있으며, 내세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노력을 통하여 지금 성취할 수 있는 것에 관한 낙관주의에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제안한다.⁶² 하지만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진적인 발전으로써 완성된다고 보지 않고, 세상 역사는 일반적인 배교와 하나님의 묵시적 개입으로써 종말을 맞이하여 완성된다고 이해한다.⁶³

바빙크에게 있어, 베드로후서 3:10-11의 ‘녹다’와 ‘풀어지다’ 그리고 계시록 21:1의 천지가 없어짐이라는 언급은 실체의 소멸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자

59 Bavinck, 『개혁교의학 4』, 814. 참고로 바빙크는 그리스도인이 사후에 하나님의 본질을 볼 것이라는 입장을 비판하는데,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구분을 없애고 신격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개혁교의학 2.190-91). 그리고 바빙크는 자연과 초자연을 구분함으로써 영광의 빛을 통해 성도의 지성이 높아져서 다른 존재로 변할 것이라는 천주교식 주장도 반대한다(『개혁교의학 2』, 191). Boersma, “Neo-Calvinism and the Beatific Vision,” 25-26에서 재인용.

60 Bavinck, 『개혁교의학 4』, 848-49.

61 Bavinck, 『개혁교의학 4』, 717. 참고. S. Hielema, “Herman Bavinck’s Eschatological Understanding of Redemption,” (Th.D. Thesis, Wycliffe College, 1998), 458.

62 Bavinck, 『개혁교의학 4』, 395-96, 437; D. VanDrunen, “The Kingship of Christ is Twofold: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in the Thought of Herman Bavinck,” *Calvin Theological Journal* 45 (2010), 160.

63 Bavinck, 『개혁교의학 4』, 684-85; VanDrunen, “The Kingship of Christ is Twofold,” 161-62.

갱신이다.⁶⁴ 그러므로 기존의 것들이 재창조될 것이다. 세상 갱신과 더불어 재림 때, 성도도 영광스럽게 변모되어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될 것이다(계 2:11; 4:10; 5:9-13; 7:10, 15-17; 20:6, 14; 21:3-4; 22:3).⁶⁵

바빙크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성은 '신부'라 불리는 교회와 동일하지 않고 오히려 장소를 가리킨다(계 21:3).⁶⁶ 따라서 여기서 그는 계시록 자체가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성이 교회라는 주장을 반대한다(계 21:2, 9-10). 바빙크는 계시록 21-22장을 해석하면서, 계시록의 주제는 어린양의 승리로 인한 새 창조임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본다.⁶⁷

IV. 벤자민 워필드의 재림 이해

'프린스턴의 사자'(Lion of Princeton)라 불린 워필드는 종말론에 크게 집중하지 않았지만,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중간시기와 몸의 부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될 것을 소망했다.⁶⁸ 워필드는 소논문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4가지 원칙을 설명하는데,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계시록의 서론(1:1-8)과 결론(22:6-21) 사이의 7가지 환상 단락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그리스도 나라의 승리를 반복적이고 연속적이며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윤리적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다.⁶⁹

워필드는 계시록 19:11-21의 전쟁을 재림으로써 악의 세력이 파멸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여 승리하는 완성을 상징적으로

64 Bavinck, 『개혁교의학 4』, 50, 717, 850-51. 그리고 『개혁교의학 2』, 553-54도 참고하라.

65 Bavinck, 『개혁교의학 4』, 720-21. 참고. Kristanto, "Is the Creation under Destruction?" 196.

66 Bavinck, 『개혁교의학 4』, 853.

67 Bavinck, 『개혁교의학 3』, 1. 참고. Hielema, "Herman Bavinck's Eschatological Understanding of Redemption," 460.

68 참고. F. G.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Wheaton: Crossway, 2010), 533.

69 워필드는 반복이론의 지지자들로 어거스틴, 코케이우스, 헝스텐버거 등을 언급한다. Warfield, *Biblical Doctrines*, 645-46.

다루는 것으로 보는데, 이미 계시록 6:2와 12:1에서 간략하게 설명된 바 있다.⁷⁰ 워필드는 명사 ‘적그리스도’가 요한서신에만 등장한다고 설명하면서도(요일 2:18, 22; 4:3; 요이 7), 신약성경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마 24:24), ‘불법의 사람’(살후 2:8), 그리고 ‘바다짐승’(계 13:1)과 동일하다고 간주한다.⁷¹ 워필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배교, 죄의 사람(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재림을 찾지만, 이 셋은 정확하게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⁷² 워필드는 ‘불법의 사람’(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 마 24:15; 살후 2:3, 7)을 유대-로마 전쟁 당시 적그리스도와 같은 박해 세력이 구체화된 디도 장군으로, ‘막는 것’(살후 2:6)을 로마제국에서 초대교회에게 방패가 되어준 유대 국가로, 그리고 ‘막는 자’(살후 2:7)를 유대교의 배교와 박해를 막은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아보고로 본다.⁷³ 따라서 워필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미래적 해석보다는 AD 1세기 관점 즉 과거적 해석으로 이해한다.

워필드는 천년왕국(계 20:1-6)을 죽은 성도의 살아 있는 영혼이 낙원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복되게 머무는 중간상태로 보는데, 그것은 계시록 6:9와 14:13에 이미 반복되었다.⁷⁴ 여기서 숫자 1000은 완전하고 긴 기간을 상징한다.

워필드는 결박된 사탄이 미혹하지 못하는 만국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데, 죽은 성도의 영혼이 머무는 낙원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⁷⁵ 그리고 그는 천년왕국 후 사탄이 잠시 놓이는 것(계 20:3)은 재림 직전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데, 계시록 19:11-21의 전쟁도 이 때 벌어진다고 해석한다.⁷⁶ 따라서 계시록 19:11에서 20:1 이하로의 전환은 시간적 순서로 이해할 수 없다.

⁷⁰ Warfield, *Biblical Doctrines*, 647.

⁷¹ 하지만 워필드는 부정적으로 혼재된 여러 인물에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주저한다. B. B. Warfield, “Antichrist,” *Expository Times* XXXII/5 (1921), 358.

⁷² B. B. Warfield, *The Works of Benjamin B. Warfield: Biblical Doctrines*, Vol. 2 (Bellingham: Logos Bible Software, 2008), 609.

⁷³ Warfield, *The Works of Benjamin B. Warfield: Biblical Doctrines*, Vol. 2, 609-611;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540.

⁷⁴ Warfield, *Biblical Doctrines*, 649-51.

⁷⁵ Warfield, *Biblical Doctrines*, 657.

⁷⁶ Warfield, *Biblical Doctrines*, 656, 658.

워필드에 따르면, 첫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고, 둘째 사망(계 20:14)은 지옥에 던져진 악인들의 최후상태를 가리키는데,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별도로 있지 않다.⁷⁷

워필드에 따르면, 계시록 21:1-8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만, 계시록 21:9-22:5는 성도가 갈 집이나 천국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실현된 예수님의 신부의 이상적인 모습을 묘사한다.⁷⁸

워필드는 재림 이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데(계 19:11-21; 참고. 마 24:14), 그 다음 곧바로 재림과 최후심판 그리고 천국의 완성이 뒤따를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지상 교회 앞에 복음화된 온 세상, 다시 말해 전투하여 승리하는 교회에게 황금기가 주어질 수 있다고 본다(마 6:11; 28:18-20; 고전 15:24-25).⁷⁹ 하지만 재림 이전에는 죄가 전혀 없는 세상이 도래할 수 없기에, 계시록 19:21은 완전한 세상을 언급하지 않으며, 그런 세상은 21:1 이후에 등장한다. 따라서 신천신지에서 완전한 교회의 절대적인 황금시기가 시작될 것이다.⁸⁰ 그러므로 워필드는 교회가 누릴 황금시기를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틀로 해석한다.

V. 카이퍼, 바빙크 그리고 워필드의 재림 이해 비교

카이퍼, 바빙크 그리고 워필드는 재림에 관한 서로의 저작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재림론과 종말론 이해를 공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먼저 공통점이 매우 큰 두 화란 신학자를 비교해 보면, 이들이 재림을 중심으로 하는 종말론을 이해할 때 유사점은 아래와 같다. (1)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무오성과 사도 요한 저작성을 인정한다.⁸¹ (2) 계시록의 후기 기록 연대를 따르

77 Warfield, *Biblical Doctrines*, 653, 662.

78 워필드는 계 21:9-22:5를 모든 시대의 지상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본 Milligan을 비판한다. Warfield, *Biblical Doctrines*, 659-60.

79 Warfield, *Biblical Doctrines*, 663-64;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535.

80 Warfield, *Biblical Doctrines*, 663.

81 성경의 영감성을 인정한 것은 이 두 화란 신학자는 물론 워필드가 어릴 적부터 익힌 청교도적

며,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고난 중의 독자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본다. (3) 계시록의 숫자들(예. 1000)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4) 전천년설을 반대하고 무천년설을 따른다. (5) 계시록 본문 주해에서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나 1차 독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는데 미흡하다. 계시록 1:7부터 1세기 상황이 아니라 재림을 찾으며, 세 가지 해석 방식(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을 혼합한다. (6) 계시록에 나타나지 않은 명사 ‘적그리스도’를 자주 언급하며, 데살로니가후서 2:9 등을 간본문으로 제시한다. 그 결과 일반적인 배교를 세상 종말의 징조로 본다.⁸² (7) 새 창조를 통한 지구갱신론을 지지하는데, 피조계의 형태는 소멸되지만 본질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본다. (8) 계시록의 내러티브 시간과 실제 시간을 구분하며, (심판 환상을 해석할 때) 반복 이론을 따른다.⁸³

카이퍼와 바빙크 간의 차이점도 간과할 수 없다. (1) 과거적 해석, 세상교회적 해석, 그리고 미래적 해석을 종합하되, 바빙크는 카이퍼보다 계시록 1:7과 2장에서부터 재림을 더 강조한다. (2) 카이퍼는 계시록을 주해했지만 간본문적 해석은 빈약하다. 반면, 바빙크는 논지를 교의학적으로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 본문들을 기반으로 삼는다. (3) 바빙크는 성경 구절을 많이 제시하지만, 그가 활용한 증거구절의 적절성은 주석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히 감람산 강화와 적그리스도를 해석함에 있어 자체 모순이나 논리적 비약이 나타난다(예. 마 24:34의 ‘이 세대’와 ‘이 모든 것들’; 요한일서서의 적그리스도를 직접 계시록의 바다짐승 해석에 도입함). (4) 바빙크와 달리 카이퍼는 마지막 사도인 요한 이후의 상황을 알리려는 것을 계시록의 기록 목적으로 부각시킨다. 하지만 그것을 계시록의 1차 독자의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 (5) 카이퍼는 새 예루살렘성을 갱신된 신천신지의 중심지이자 ‘아버지의 집’으로 본다(요 14:2). 그리고 그는

경건과 무관하지 않다. W. A. Hoffecker, “The Devotional Life of Archibald Alexander, Charles Hodge, and Benjamin B. Warfield,”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2/1 (1979), 124-29.

82 이와 유사한 주장은 Van Rhyn and Jordaan, “N Betekenisdefinisie van *παρουσία* as Wederkomswoord,” 4를 보라.

83 카이퍼와 바빙크의 9가지 유사점은 화관개혁교회(해방파) 목사 안 판 브뤼헨(1909-1965)에게도 나타난다. J. van Bruggen, *Aantekeningen bij de Heidelbergse Catechismus*, 김현수·성희찬 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서울: 성약, 2020), 250-57.

새 예루살렘성을 성도로도 보기에 상징의 다중적 의미를 지지한다. 하지만 바빙크는 새 예루살렘성을 교회가 아니라 회복될 장소로만 본다. (6) 바빙크는 계시록의 복된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것을 성도의 신격화로 이어질까 우려하여 반대하지만, 카이퍼는 재림 후 성도가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7) 카이퍼와 달리 바빙크는 신천지의 변혁과 악에 대한 심판이 초림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워필드와 두 화란 신학자 간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1) 계시록 환상의 연대기적 전개를 따르지 않는 반복이론, (2) 환상의 상징적 해석, (3) 재림 이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인정한 점, (4)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교회 역사를 증시하면서 재림으로써 절정에 도달할 구속사의 발전을 강조한 점, (5) 바다짐승을 적그리스도 및 불법의 사람과 유사하게 본 점, 그리고 (6) 신자와 불신자의 별도의 부활과 천년년설을 반대한 점. 그리고 워필드는 바빙크처럼 계시록 주해가 성도의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힘썼다.⁸⁴ 하지만 워필드가 재림 이전에 교회의 황금 시기를 인정하여 후천년설적 요소를 지지하고, 천년왕국을 중간상태로 제한하며, 계시록 19:11 이하를 재림으로 보지 않은 것은 두 화란 신학자와 다르다.⁸⁵ 그리고 워필드는 계시록 21:9-22:5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이해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로 파악한 바빙크의 견해와 다르다. 또한 두 화란 신학자와 비교할 때 워필드는 간본문성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기에 계시록 해석에서 감람산강화를 드물게 언급하고, 세상 갱신론을 명시하지 않으며, 적그리스도를 미래 종말의 특정 인물로 국한하지 않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과 이단으로 파악하며,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과거적 해석을 시도한 것은 독특성이다.⁸⁶

VI. 카이퍼, 바빙크, 그리고 워필드의 재림 이해에 대한 평가

84 참고. R. Gleason, *Herman Bavinck: Pastor, Churchman, Statesman, and Theologian*, 윤석인 역, 『헤르만 바빙크 평전』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4), 582.

85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536.

86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534-40.

1. 교부들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본 평가

이 세 학자는 소위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들’이므로, 그들이 칼빈처럼 교부들을 많이 의존했는가를 살피는 것은 유의미하다. 라틴교부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계시록 주석을 남긴 순교자 빅토리누스(d. 304)는 주님의 재림을 계시록 1:7에서부터 찾는다. 그는 재림을 천천년설에 따라 이해하고, 반복 이론을 따르면서, 계시록 6:2-12, 8-9, 12:9, 13:1-11 등에서 미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찾는다. 그리고 빅토리누스는 새 예루살렘성은 장소로서 천국이다.⁸⁷ 그리고 4세기 라틴교부 티코니우스는 무천년설을 따라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계시록에서 미래 종말에 집중하기보다 전체 교회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를 찾았다.⁸⁸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 XX. 11과 19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세 신학자와 유사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어거스틴은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사탄이 실제 역사 속에서 활동할 적그리스도라는 인물로 성육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와 족장들 안에 예표되었듯이, 사탄은 자신의 선구자들을 많은 불경건한 세력들 안에 가지고 있다. 이방 박해자들, 이단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대적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적그리스도 안에서 반복된다. 초대교회에 닥친 박해가 종말에 전무후무하게 다시 닥칠 것이다. 마지막 박해와 전투는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데, 온 세계의 교회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곡과 마곡(계 20:9)은 로마제국을 침략한 야만 게르만족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열국으로부터 등장할 것이다.⁸⁹

⁸⁷ 참고. Victorinus,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이 라틴어 주석의 영역은 www.preteristarchive.com/0260_victorinus_apocalypse/에서 볼 수 있음(2020년 3월 13일 접속).

⁸⁸ *CSB Ancient Faith Study Bible* (Nashville: Holman Bible Publishers, 2019), 1584-95.

⁸⁹ 위필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을 위해 특히 어거스틴을 존경했다. 참고. J. van Oort, “The End is Now: Augustine on History and Eschatology,” *HTS Theologese Studies* 68/1 (2012), 6.

6세기 동방교부 오이쿠메니우스는 계시록 1:7과 8:1-2에서 재림을 찾고, 계시록 6장을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활동으로 이해하며, 천주교 전통을 따라 계시록 12:1에서 마리아를 찾고, 계시록 12:3-6과 13:11 그리고 17:8과 19:11-16에서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패망을 찾고, 계시록 14:15-16에서 인류에게 닥칠 종말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1000년을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으로 보며, 새 예루살렘성(21:2)은 신부와 장소 모두를 가리킨다고 보며, 계시록 21:1에서 세상 갱신과 소멸도 모두 인정한다.⁹⁰ 오이쿠메니우스의 견해를 종종 따르는 6세기 동방교부 가이사라의 안드레아스는 천주교의 교리를 존중하고(계 21:1-2, 13) 전천년설을 반대하며, 과거적 해석(계 16:5-6), 세상-교회 역사적 해석(계 6), 적그리스도와 대환난이라는 미래적 해석(자연이 문자적으로 심판을 받아 파괴됨[계 8:7-13]; 13:9-10; 16:20; 19:9), 그리고 이상주의적 해석(계 14:8)을 혼합하여 윤리적 교훈(계 12:10-12)을 찾는다.⁹¹

빅토리누스의 반복 이론은 카이퍼와 바빙크와 유사하고, 새 예루살렘성을 장소로만 본 것은 바빙크와 동일하다. 빅토리누스와 오이쿠메니우스 그리고 어거스틴이 적그리스도와 재림을 중심으로 미래적 해석을 시도한 점 그리고 티코니우스와 어거스틴의 무천년설은 이 글에서 살핀 세 신학자의 견해와 유사하다. 오이쿠메니우스가 새 예루살렘성을 다중적으로 본 것은 카이퍼와 유사하다. 안드레아스가 문자적인 자연의 파괴를 찾고 전천년설을 반대한 것은 바빙크와 가깝다. 교부들에게 세상의 갱신 사상은 세 신학자보다 분명하지 않다.

2. 시클 흐레이다너스의 요한계시록 주석(1925)에서 본 평가

카이퍼와 바빙크 당시 대표적인 화란 개혁주의 진영의 요한계시록 주석은 흐레이다너스의 것이다. 카이퍼가 설립한 자유대학교에서 교의학을 수학 후

90 Oecumenius,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trans. by J. N. Suggit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6), 60-79; W. C. Weinrich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Revelation*, 이해정 역. 『교부들의 성경 주해: 요한계시록』 (왜관: 분도출판사, 2010), 82-567.

91 *CSB Ancient Faith Study Bible*, 1597-1609.

바빙크처럼 칼빈신학교에서 교수한 흐레이다너스의 주석에 나타난 재림 종말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카이퍼와 바빙크처럼 흐레이다너스는 계시록 1:7을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본다(마 16:27; 24:31; 계 14:14-16).⁹² 그리고 계시록 6장 이후의 내러티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시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며, 계시록 6:2의 ‘흰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가리킨다.⁹³ 계시록 7장과 14장의 144000명은 모든 성도가 아니라 ‘탁월한 성도’로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적으로 잘 싸우고 고난을 당한 이들이다.⁹⁴ 그런데 카이퍼와 바빙크는 144,000명을 전체 교회라고 이해하기에 흐레이다너스처럼 탁월한 성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흐레이다너스는 두 증인을 죽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계 11:7)은 적그리스도로 보며, 로마제국은 바다짐승(계 13:1)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라 이해한다.⁹⁵ 그런데 바다짐승(계 13:1)은 전 인류의 정부 그리고 정치적 기구로서 민족들과 나라들이기도 하다.⁹⁶ 그리고 땅 짐승(계 13:1)은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내적이며 영적 특성을 가진 세력인데, 예수님과 복음을 거스르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학문이다.⁹⁷ 바다짐승의 수 666(계 13:18)은 적그리스도이다(6은 안식이 없는 피조물의 충만, 666은 온 세상의 충만).⁹⁸ 따라서 흐레이다너스의 바다짐승 이해와 그 짐승의 수이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666 이해 간에 약간의 자체 불일치가 나타난다. 하지만 카이퍼와 바빙크처럼, 흐레이다너스는 미래 종말론적 인물인 적그리스도가 요한 당시에 로마제국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본다. 흐레이다너스의 이런 논리는 계시록 14장의 두 추수 환상과 16-20장을 해석하는데도 나타난다. 계시록 14:14의 흰 구름 위에 계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는 환상은 마태복음 24:30과

92 S.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Amsterdam: H. A. Van Bottenburg, 1925), 21. Contra 신동욱. “요한계시록은 임박한 종말을 말하고 있는가?” 1124.

93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144, 148.

94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170, 286.

95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234.

96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267.

97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277.

98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285.

계시록 1:7처럼 재림의 상황이다.⁹⁹ 그리고 계시록 14:16-20의 포도 수확과 심판은 온 세상에 임할 최후 심판으로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완전히 패망될 것을 예고한다.¹⁰⁰ 계시록 16장의 7대접 심판 중에서 바다짐승의 보좌가 심판을 받는 것(계 16:10)은 온 세상에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임한 심판이다.¹⁰¹ 계시록 16:12-13은 곡과 마곡과 세상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며, 16:13의 짐승은 정치적 의미를 가진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¹⁰² 아마겟돈 전쟁(계 16:16)은 계시록 20:8-9의 곡과 마곡이 교회와 최후 전쟁을 벌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¹⁰³ 그러므로 아마겟돈은 특정 장소를 가리키지 않는다. 이런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 한 순간에 절정에 달할 것이다.

흐레이다너스는 계시록 17-18장의 음녀 바벨론을 요한 당시의 로마제국만 가리키지 않고 모든 시대에 걸쳐 나타난 세상의 권력의 중심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세상 지배의 중심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¹⁰⁴ 그리고 음녀가 탄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선구자이며, 17:8의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당할 자는 적그리스도 자신이다.¹⁰⁵

흐레이다너스는 계시록 19:7의 혼인잔치를 21:3처럼 재림 때 이루어지며, 계시록 19:11-16의 흰말 탄 자인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 종말 때 일어날 사건으로 간주한다.¹⁰⁶ 그리고 계시록 19:13의 피가 된 옷에서 피는 예수님이 아니라

99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303-304.

100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309.

101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325.

102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327. 이와 유사하게 계 16:14, 19:19, 20:8을 종말의 최후 전쟁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829, 838, 967을 보라.

103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330. 이와 유사한 주장은 Mueller, "Jesus and His Second Coming in the Apocalypse," 213을 보라. Contra 계 16:15-16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교회를 책망하러 영적으로 오시는 것으로 보는 신동욱. "요한계시록은 임박한 종말을 말하고 있는가?" 1138.

104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332, 337, 355.

105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345.

106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386, 392. 이와 유사한 주장은 MacLeod, "The First 'Last Thing': The Second Coming of Christ (Rev 19:11-16)," 217을 보라.

원수의 피이다(사 63:1-5).¹⁰⁷ 그런데 계시록 19:19의 전쟁은 역사상 항상 있었으나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전쟁과 그의 패배는 절정에 달한다.¹⁰⁸

흐레이다너스는 계시록 20:3의 사탄의 결박이 콘스탄틴 이후로 이방 문화가 기독교에 굴복한 때 시작되었으며, 천년왕국은 콘스탄틴 이래로 기독교가 타락하고 이방 민족들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로 본다.¹⁰⁹ 이것은 그가 속한 서구 기독교 중심의 해석이다. 계시록 20:4의 ‘살아서’는 육체 부활이 아니라 영적 의미인데,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살아서 영생을 누린다는 뜻이다.¹¹⁰ 그리고 계시록 20:8-10은 종말에 하나로 뭉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와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므로, 16:14와 19:19의 전쟁과 실제로 같은 것이다.¹¹¹ 또한 계시록 20:11은 완전한 세상의 변화, 갱신이며, 20:12의 책들은 ‘양심의 책들’(de boeken der consientiën)이다.¹¹² 흐레이다너스는 계시록 21:1-2의 신천신지를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세상의 갱신을 가리킨다고 보며(마 19:28; 행 3:21),¹¹³ 계시록 21:12-14의 12지파와 12사도를 구약과 신약의 교회로 파악한다.¹¹⁴

흐레이다너스는 카이퍼와 바빙크처럼 과거주의, 역사주의, 그리고 미래주의를 혼합한다. 흐레이다너스가 전천년설을 반대하고, 반복 이론을 지지하며, 재림 전의 적그리스도를 강조한 것, 그리고 세상의 갱신을 분명히 강조한 점도 카이퍼와 바빙크와 유사하다. 흐레이다너스는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해한 점에서 특히 카이퍼와 유사하다. 흐레이다너스의 계시록 19:11 이하 해석은 워필드와 다른데, 후자는 이 단락을 재림으로 이해하지 않고, 계시록의 악의 세력들을 요한 당시에 시작하여 전체 교회 시대를 거쳐 재림 직전의 인물로 연결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¹¹⁵

107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394. 참고, MacLeod, “The First ‘Last Thing’: The Second Coming of Christ (Rev 19:11-16),” 214.

108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397.

109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403.

110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406.

111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410.

112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412-13.

113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416.

114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424.

3. 현대 개혁주의 계시록 연구에서 본 평가

계시록 19-22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현대 개혁주의 주석가들의 경향을 두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¹¹⁶ (1) 이상주의적(idealistic) 해석자들은 대체로 계시록 19장에서 재림을 찾고, 계시록 20장에서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천년왕국을 찾는다. 따라서 계시록 19장과 20장은 시간적으로 배열되지 않았다. 이 견해는 두 란드(J. A. du Rand)와 비일(G. K. Beale) 등에게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적그리스도 개념을 인정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이다.¹¹⁷ 이들은 계시록의 환상이 요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파악하고, 악에 대한 교회의 승리의 원칙을 찾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카이퍼와 바빙크에 가깝다. (2) 부분적 과거론적(partial preteristic) 해석을 따른 이들은 계시록 19장을 AD 1세기의 복음의 확장으로 보며, 계시록 20장에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전개되는 천년왕국과 재림을 순차적으로 찾는다. 그리고 그들은 계시록 21-22장의 신천신지와 새 예루살렘성을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종말론적 틀로 주석하며, 새 예루살렘성을 장소가 아니라 신부로 이해하고,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주해에 도입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로 후천년주의자로서 레이하르트(P. J. Leithart)와 쟈트리

115 화란의 카이퍼, 바빙크, 흐레이다너스, 그리고 클라스 스킨더는 계시록 해석과 재림 이해에 있어 공통점이 많다. 카이퍼와 바빙크는 재림 해석에서 공통적으로 독일 학자 한 명을 언급한다. 하지만 그 학자가 카이퍼와 바빙크의 재림 이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또한 카이퍼와 바빙크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반천주교 및 교회-세상역사적 해석과 17세기의 휘고 흐로티우스(d. 1645)의 과거론적 계시록 해석과 크게 다르다. 따라서 카이퍼와 바빙크가 18세기에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 송영목, "칼빈이 계시록 주석을 썼다면," 『칼빈 연구』 7 (2010), 151-75; K. Schilder, *De Openbaring van Johannes en het Sociale Leven* (Delft: Boekhandel & Drukkerij W. D. Meinema, 1925).

116 천천년설을 따르는 순복음, 침례교, 감리교, 안식교 등과 루터교는 여기 논의에서 제외한다. 계 19:11에서 재림을 찾은 후 시간적 흐름을 존중하여 20:1에서 재림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는 전천년주의자인 B. M. Fanning, *Revelation*,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20), 485, 499-500.

117 J. A. du Rand, *A-Z van Openbaring* (Vereeniging: CUM, 2007), 549, 574; *Die Einde*, 169;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972, 984.

(K. L. Gentry Jr.) 등이 대표적 학자들이다.¹¹⁸

이상주의와 부분적 과거주의는 계시록의 주요 신약 간본문인 감람산강화와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해석에서도 갈린다. 이상주의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14절과 같은 앞부분에서 재림을 찾는 것과 달리,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마태복음 24:3-34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보며, 24:36 이하는 재림으로 본다.¹¹⁹ 그리고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8의 ‘불법의 사람’을 네로 황제로 보며, 계시록에 등장하지 않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자제하는 점에서 이상주의자들과 차이가 난다. 따라서 과거론자들의 해석은 위에서 살핀 대로 승리의 후천년설을 지지하며 부분적 과거론에 따라 특정 본문들을 주해한 바 있는 워필드에 가깝다.

4. 카이퍼, 바빙크, 그리고 워필드의 기여와 보완점

카이퍼와 바빙크 그리고 워필드의 재림 종말론은 여러 긍정적 기여가 있다. 먼저 세 학자는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 존경받지만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반천주교 방식의 계시록 해석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계시록의 균형 잡힌 해석을 위해 종교개혁자들의 세상-교회 역사적 해석을 넘어설 뿐 아니라, 과거주의, 이상주의 그리고 미래적 해석을 종합하려고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학자의 재림 이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은 앞으로 올바른 재림 이해를 위한 제안이기도 하다. (1) 간본문인 감람산강화를 지나치게 미래적으로 해석한다(카이퍼, 바빙크).¹²⁰ (2) 간본문인 감람산강화와 데살로니

118 P. J. Leithart, *Revelation 12-22* (London: T&T Clark, 2018), 346, 360; K. L. Gentry Jr., *The Divorce of Israel: A Redemptive-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 Volumes II (Dallas: Tolle Lege, 2017), 743.

119 참고. Berry,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the Coming of the Son,” 67-68.

120 이 세 신학자와 유사하게 D. A. Carson도 오늘날 감람산강화를 주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마 24:15-21과 34절은 성전 파괴를 예고하고, 나머지 구절들은 재림에 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C. J. Moore, “Can We hasten the Parousia?: An Examination of Matt 24:14 and Its Implications for Missional Practice,” *Themelios* 44/2 (2019), 208에서 재인용. Contra R. C. Sproul, *The Last Days according to Jesus*, 김정식 역, 『예수의 종말론』 (서울: 좋은씨앗, 2019), 74;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가후서 2장에 대한 과도한 미래적 해석 및 적그리스도 개념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적용했다(카이퍼, 바빙크). (3) 빈약한 간본문적 해석은 워필드는 물론 바빙크의 문제점이기도한데,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4) 서양 중심적 세계관을 반영하기에, 계시록 20장의 전투에서 문명국을 향한 적그리스도 세력의 공격을 강조하는데(카이퍼, 바빙크), 이와 유사한 결은 천년 왕국의 시작점을 콘스탄틴에서 찾은 흐레이다너스에게서 볼 수 있다. (5) 신천신지와 새 예루살렘성 해석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의 균형 잡힌 주해가 다소 부족하다.¹²¹ (6) 상이한 해석을 포괄함으로써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다시 말해,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이상적 해석, 적그리스도의 파멸과 재림이라는 미래적 해석, 그리고 요한 당시에서 출발하여 전체 교회와 세상 역사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역사적 해석은 과연 종합이 가능한가? 이 세 학자는 물론 흐레이다너스도 저자가 의도한 석의와 적용을 구분해야 하는데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 (7) 계시록의 시간표와 1차 독자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다(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계시록의 자체 증거에 따르면, 대부분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므로(계 1:1; 22:6), 석의에서 계시록의 1차 독자를 철저히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심지어 계시록 22:10의 때가 가까움과 22:12, 17의 속히 오심을 통해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자신의 재림을 기대하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며 재림을 선취하기를 기대하셨다.¹²² (8) 문맥과 기록 목적을 고려하여 정확한 주해가 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빙크가 계시록 1:7과¹²³ 2장부터 재림을 강조한 것, 그리고 계시록 19:20에서 용의 심판을 찾은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2005), 404-417.

121 참고로 계 21:1-22:5를 새 창조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다가, 교회 시대를 통한 새 창조의 과정이라고 주장하여 자체 논리적 모순을 보인 경우는 비일에게 나타난다.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1041, 1044, 1063.

122 신동욱. “요한계시록은 임박한 종말을 말하고 있는가?” 1138-42.

123 과거론적 해석은 계 1:7을 재림이 아니라 AD 70년 사건으로 이해하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박해한 불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한다(계 2:9; 3:9). 참고. 송영목, “계시록 1:7절의 간본문적, 내적 간본문적, 그리스도 완결적 읽기,” 『교회와 문화』 25 (2010), 131-54.

Ⅶ. 나오면서

약 100년 전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활동한 카이퍼, 바빙크, 그리고 워필드에 대한 교의학적 연구는 풍성하지만, 그들의 미래 종말론에 대한 연구와 성경주석적 입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부족하다. 카이퍼와 바빙크 그리고 워필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론, 역사론, 미래론, 이상론을 종합했는데, 첫 두 학자의 유사성은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 세 학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성경신학적 탐구와 교의학적 접근을 종합했다. 또한 그들의 결론은 AD 4-6세기 교부들의 해석은 물론, 반(反) 천주교적 해석에 몰두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와도 적지 않는 긍정적 차이를 보였기에, 나름대로 학문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연구는 교의학적 논의로 곧장 뛰어들기보다, 계시록 19-22장의 철저한 주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주해는 계시록이 암시하는 구약과 유대묵시문헌, 그리고 그레코-로마 세계 간의 간본문적 해석을 요청한다.

[참고문헌]

- Bavinck, H. *Gereformeerde Dogmatiek* 1-4. 박태현 역. 『개혁신학의학 1-4』.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 Bavinck, J. H. *En Voort Wentelen de Eeuwen: Gedachten over het Boek der Openbaring van Johannes*. Wageningen: Zomer en Keuning, 1964.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 Berry, C. E.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the Coming of the Son: Evangelical Interpretations of the Olivet Discourse in Luke." *The Southern Baptist Journal of Theology* 16/3 (2012), 62-74.
- Boersma, H. "Blessing and Glory: Abraham Kuyper on the Beatific Vis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52/2 (2017), 205-241.
- _____. "Neo-Calvinism and the Beatific Vision: Eschatology in the Reformed Tradition." *Crux* 56/3 (2020), 25-29.
- CSB Ancient Faith Study Bible*. Nashville: Holman Bible Publishers, 2019.
- Du Rand, J. A. *A-Z van Openbaring*. Vereeniging: CUM, 2007.
- _____. *Die Einde: Die A-Z van die Bybelse Boodskap oor die Eindtyd*. Vereeniging: CUM, 2013.
- Fanning, B. M. *Revelation*.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20.
- Gentry Jr., K. L. *The Divorce of Israel: A Redemptive-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 Volumes II. Dallas: Tolle Lege, 2017.
- Gleason, R. *Herman Bavinck: Pastor, Churchman, Statesman, and Theologian*. 윤석인 역. 『헤르만 바빙크 평전』.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4.
- Greijdanus, 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Amsterdam: H. A. Van Bottenburg, 1925.
- Harinck, G. "Herman Bavinck and Geerhardus Vos." *Calvin Theological Journal* 45 (2010), 18-31.

- Hielema, S. "Herman Bavinck's Eschatological Understanding of Redemption." Th.D. Thesis. Wycliffe College, 1998.
- Hoffecker, W. A. "The Devotional Life of Archibald Alexander, Charles Hodge, and Benjamin B. Warfield."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2/1 (1979), 111-29.
- Kristanto, D. "Is the Creation under Destruction?: Abraham Kuyper and Herman Bavinck on New Creation." *Jurnal Teologi dan Pelayanan* 19/2 (2020), 189-200.
- Kuyper, A. *The Revelation of St. John*. Translated by J. H. de Vries. Eugene: Wipf & Stock, 1999.
- Leithart, P. J. *Revelation 12-22*. London: T&T Clark, 2018.
- MacLeod, D. J. "The First 'Last Thing': The Second Coming of Christ (Rev 19:11-16)." *Bibliotheca Sacra* 622 (1999), 203-220.
- Marshall, I. H. "How did the Early Christians know Anything about Futu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Baptist Studies* 9/3 (2009), 7-23.
- Möller, F. P. "A Hermeneutical Commentary on Revelation 20:1-10." *In die Skriflig* 53/1 (2019), 1-11,
- Moore, C. J. "Can We hasten the Parousia?: An Examination of Matt 24:14 and Its Implications for Missional Practice." *Themelios* 44/2 (2019), 291-311.
- Mueller, E. "Jesus and His Second Coming in the Apocalypse."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11/1-2 (2000), 205-215.
- Oecumenius.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Translated by J. N. Suggit.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6.
- Schilder, K. *De Openbaring van Johannes en het Sociale Leven*. Delft: Boekhandel & Drukkerij W. D. Meinema, 1925.
- Sproul, R. C. *The Last Days according to Jesus*. 김정식 역. 『예수의 종말론』. 서울: 좋은씨앗, 2019.
- Taylor, N. H. "Early Christian Expectations concerning the Return of Jesus: From Imminent Parousia to the Millennium." *Journal of*

-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104 (1999), 32-43.
- Van Bruggen, J. *Aantekeningen bij de Heidelbergse Catechismus*. 김현수·성희찬 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서울: 성약, 2020.
- VanDrunen, D. 『기독교 정치학』. *Politics after Christendom*. 박문재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20.
- _____. “The Kingship of Christ is Twofold: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in the Thought of Herman Bavinck.” *Calvin Theological Journal* 45 (2010), 147-64.
- Van Oort, J. “The End is Now: Augustine on History and Eschatology.” *HTS Teologiese Studies* 68/1 (2012), 1-7.
- Van Rhyen, H. P. M. and Jordaan, G. J. C. “N Betekenisdefinisie van *παρουσία* as Wederkomswoord.” *In die Skriflig* 54/1 (2020), 1-8.
- Victorinus.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www.preteristarchive.com/0260_victorinus_apocalypse/. 2020년 3월 13일 접속.
- Wallis, W. B. “The Coming of the Kingdom: A Survey of the Book of Revelation.” *Presbyterion* 8/1 (1982), 13-70.
- Warfield, B. B. “Antichrist.” *Expository Times* XXXII/5 (1921), 358-60.
- _____. *Biblical Doctrin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1929).
- _____. *The Works of Benjamin B. Warfield: Biblical Doctrines, Vol. 2*. Bellingham: Logos Bible Software, 2008.
- Weinrich, W. C.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Revelation*. 이해정 역. 『교부들의 성경 주해: 요한계시록』. 왜관: 분도출판사, 2010.
- www.preteristarchive.com/0260_victorinus_apocalypse/. 2020년 3월 13일 접속.
- Zaspel, F. G.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Wheaton: Crossway, 2010.
- 박재은. “아브라함 카이퍼와 영원으로부터의 칭의.” 『갱신과 부흥』 27 (2021),

189-218.

송영목. “계시록 1:7절의 간본문적, 내적 간본문적, 그리스도 완결적 읽기.” 『교회와 문화』 25 (2010), 131-54.

_____. “요한계시록의 전통적 4가지 해석의 비교 및 분석,” 『그 말씀』 11월호 (2007), 110-25.

_____. “칼빈이 계시록 주석을 썼다면.” 『칼빈 연구』 7 (2010), 151-75.

신동욱. “요한계시록은 임박한 종말을 말하고 있는가?” 『신약논단』 17/4 (2010), 1113-1149.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Abstract]**An Evaluation of the Understandings of Abraham Kuyper, Herman Bavinck, and Benjamin B. Warfield on the Second Coming**

Young Mog Song

(Kosin University, Professor, New Testament Theology)

Abraham Kuyper(1837-1920) wrote about the book of Revelation in the weekly magazine De Heraut for which he served as the editor for six years from the age of 76. His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 as one volume book was published after his death, but it is still unfamiliar in Korea. Around that time, Herman Bavinck(1854-1921) dealt with the eschatology including the Second Coming of Jesus, in the last part 11 of Volume 4 (1895/1906) of Reformed Dogmatics. In Korea, however, there are hardly any systematic theological and biblical exegetical studies on Bavinck's eschatology in general, and the Second Coming in particular. Similarly, a proper attention to the eschatology focused on the Second Coming by Benjamin B. Warfield has not been pai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compare, and evaluate their understanding by focusing on the Second Coming of Jesus in the eschatology of Kuyper, Bavinck, and Warfield. To evaluate the theories of the Second Coming of these three theologians, the present researcher refers to the commentaries of Revelation by the Church Fathers, a Dutch New Testament scholar at the time of these three theologians, and recent scholars. Finally, a brief comment is to be given for overcoming the weaknesses of Kuyper,

Bavinck, and Warfield on their understandings of the Second Coming.

Key Words: Abraham Kuyper, Herman Bavinck, Benjamin B. Warfield, the Second Coming, comparison, evaluation

